

◇우리교회 성구◇

나의 힘이 되신 여
호와여 내가 주를 사
랑하나다

(시편 18:1)

총현

1974년 11월 3일 발행

발행인 김 창 인
편집인 윤 종 순

서울중구충무로 5가36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 현 교 회
(27) 9937 · 9738



<사설>

감상적인 눈이 아닌 지혜와 결단의 눈으로

—1975년의 사업계획을 위하여—

질서와 규모있는 생활은 어느 누구에게나 요구되는 바
른 생활태도이다.

마찬가지로 한 단체가 부여된 사명을 보다 효과적
으로 수행하려 한다면 해도 바른 질서와 짜임새있는 계
획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제 두번 다시 맞을 수 없는 1974년이 저물려 하고
있으며 또한 가능성으로 가득찬 1975년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기관이 이
미 1975년도 사업계획을 시작하고 있으며 그외 기관도
사업계획을 서두르고 있으리라 본다.

우리는 이 같은 사업계획에 앞서 몇가지 부언하고자
한다.

먼저 1974년을 반성해 보자. 지나온 나날에 대한 미
련을 둔 감상적인 눈이 아니다. 앞을 내다보는 지혜와
결단의 눈으로, 지나온 나날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연초에 세운 어떤 계획이 얼마나 성취되었
는가? 그리고 그 계획의 성취과정에 있어 「우리」나
「너」라고 말하기 이전에 「나」는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
여하였는지도 돌아보자.

더 나은 1975년을 바라는 만큼 막연한 반성이 아니
라 보다 구체적이고 냉정한 반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바라는바 짜임새있는 계획 수립에 있어서 필수적
요건일 것이다.

둘째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
은바 은혜를 헤아려 보고, 왜 하나님은 이 같은 은혜
를 주셨는가를 믿음의 눈으로 보고 알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나와 우리 총현에 바라시는 하나님
의 뜻에 벗어남이 없이 하나님의 크신 뜻을 따라 보다
큰 안목에서 인식함 없는 믿음의 계획이 되도록 하자.

홍종만 목사 총회서 인준

일본 선교사로 파송키로



우리교회 초
등부 지도교역
자로 수고해 오
시는 홍종만 목
사님이 지난 59
회 총회에서 일
본 선교사로 파송
의 인준을 얻었

<홍종만 목사님> 다.

제일 60만동포를 위한 선교의 짐
을 담당키로 하고 오랫동안 기도해
오던중 해외복음선교회 실행위원회의
신중한 사전 결의를 거쳐 지난

8월 당회에서 홍종만 목사님을 지
명하고 총회의 인준을 기다리고 있
었다.

한편 홍목사님은 지난 10월 14일
일본 기독교총회에서 최종선교지
확정소식과 함께 보내온 초청장에
의해 내년 3월경에는 정식 출국할
예정이며, 선교지는 시모노세키(下
關)지방으로 결정되었다.

이로써 우리교회는 인도네시아의
서만수선교사에 이어 2번째의 해외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는 것이다.

수세자 모두 315명

—지난 추기 성례식에서—

해마다 봄·가을로 있는 성례식이
올해도 지난 10월 10~11일 양일간
에 걸쳐 거행되었다.

문답을 거쳐 11일 오후 7시에 여
러 목사님들의 집례로 베풀어진 세
례식에는 세례 134명(남48, 여86)
입교 5명(남4, 여1), 유아세례
56명(남25, 여31), 학습 121명(남
34, 여83)으로 모두 315명이 경건
한 마음으로 참가하였다.

한편, 10월 13일의 1·2·3부
예배에는 성찬식을 베풀어 모두
2,176명의 성도가 떡과 포도주를 나
누며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였다.

심령 부흥회

—남전도회·청년회 주최로—

우리교회 남전도회와 청년부가
주최하는 심령부흥회가 지난 10월
15~18일 본교회당에서 열렸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왔느니라」
(롬 13:12)라는 주제로 모인 금번
부흥회는 청주 중앙교회 시무 김준
규 목사님을 강사로 모셨다.

강사 김목사님은 자신과 역사속
에서의 우리 크리스찬의 위치를 밝
히며 우리의 해야 할 바를 다시 한
번 깨우쳐 주며 이제는 일어나 빛
을 발할 때임을 강조하셨다.

제 3 학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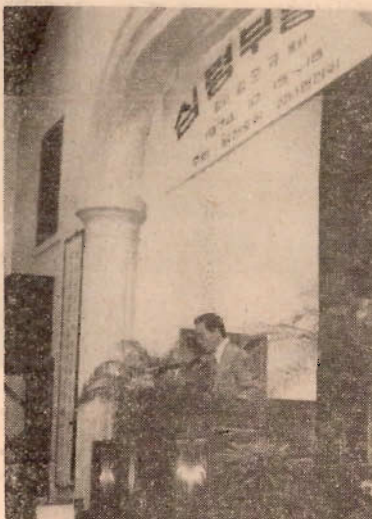
성경학원 개강

우리교회 설립20주년을 맞아 개
원한 성경학원이 지난 9월23일 제3
학기를 개강하였다.

매주 월, 화, 목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공부하는 본 학원의 제
3 학기 등록자는 57명.

신성종장도사와 윤영탁전도사등
새로운 강사진이 보강된 성경학원
은 3년동안 6 학기에 총42학점을 얻
으면 졸업하게 된다.

또한 지도자양성부 제 7기도 합
계 개강(46명)하였는데 지도자양성
부는 매주 월요일 오후7시부터 8시
40분까지 2시간 배운다.



<설교하시는 김목사님>

통일촌교회에

최병도 목사 부임

우리교회 전도부에서는 우리교회
에서 중심이 되어 건축한 통일촌교
회에 74년 10월부터 ○사단 군중참
모를 역임하셨던 최병도 목사님을
보낼 것을 결정하였다. 그런데 최
목사님은 현재 통일촌교회에서 시
무하고 계신다.



<세계식광경>

당회장 김창인목사 총회 선교부장으로

우리교회 당회장 김창인 목사님
은 이번 제59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에서 선교부장으로 선임
되었다. 이것은 본총회 해외선교분
야에서 총현교회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큼을 나타내 주는 것으로
더욱 활발한 선교활동이 기대되고
있다.

재단법인 총현동산

보사부 사무감사

재단법인 총현동산(이사장:김창
인)은 지난 9월 20일 보전사회부
당국의 1974년도 법인업무 전반에
관한 감사를 받하였다.

추석성묘 합동예배

충현동산에서

지난 9월 30일(음 8월 15일) 12시에 광주군 초월면 대쌍령리의 충현동산에서 500여명의 성도와 유족 친지가 모인 가운데 추석성묘합동예배를 드렸다.

당회장 김창인 목사님의 사회로 김종택 목사님의 기도, 요한복음 11:17-27의 봉독에 이어 「나사르의 무덤앞에 마르다와 마리아」란 제목의 김창인 목사님 설교가 있었다.

예년과 같이 거행된 합동예배였지만 매년 동산에 안장되는 성도의 수가 늘어가고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더욱 절실히 느끼는 것에 따라 올바른 내세관의 정립과 부활의 소

망을 더욱 확고히 하는 시간이었다. 예배가 마친 후 개인별 가족별로 성묘를 한 후 해산했다.



<추모 예배 드리는 모습>

인도네시아 선교관

후보지 위한 현금

해외복음선교회 실행위원회의 자 카르타시에서 37km떨어진 600m²(200평정도)의 땅을 선교관 건립후 보지로 구입키로 하고 이를 위한 현금을 실시하였다.

이 지역은 2년내 전기 가설지역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개발 무제한 가능지역으로 보고 있는데 이날의 현금에서 85만원이 모아졌다.

성광교회에 20만원보조

우리교회 전도부에서는 산업전도 계획을 위한 보조금으로 구로동 공업단지에 있는 성광교회에 20만원 을 보조하였다.

하기활동 총평가회

지난 9월 12일(火), 유년부실에서 오후 7시부터 약 3시간에 걸쳐 '74년도 본교회의 모든 하기활동을 마무리하는 하기활동 경과보고 및 총평가회가 열렸다. 김 창인 당회장목사님의 사회로 진행된 이 모임에는 30여명의 교역자들과 장로님들이 참석하였다. 한편 이 평가회에서는 본 교회 교육부에서 각부 주일 학교별 하기주양회와 농촌지도자 훈련에 대하여 전도부에서 농촌전도대 파송에 대한 각각의 경과·결과보고와 개선책·건의안 발표가 있었다. 또한 이 보고가 끝난 뒤 각 활동상황에 대한 개선책과 건의안에 대한 약간의 구체적인 논의가 있는 후 유년부의 김태현 전도사님의 기도로 이 모임을 마쳤는데 이 회의에서 건의된 내용은 내년도부터 적극 반영토록 했다.

당회장 김창인 목사 성지순회여행예정

당회장 김창인 목사님은 그동안 바타오시던 성지순회여행을 급년중에 떠나시리라 한다.

오는 11월 12일부터 12월 20일까지 한달가량의 일정으로 미국, 이스타일, 영국, 서독, 프랑스, 이탈리아 등을 여행하실 예정이다.

홍종만·이종영 전도사

수도노회서 목사 안수

—신성종 전도사는 강도사 인허—

지난 10월 15일 시내 마장동교회에서 열린 제 6회 수도노회에서 우리교회의 홍 종만·이 종영 전도사가 목사안수를 받았고 또한 이날 같은 자리에서 신 성종 전도사가 강도사 인허를 받아 가족친지와 온 교우들의 축하를 받았다.

이 날 목사 안수를 받은 홍 종만 목사는 그간 초동부와 성경학원 지도 교역자로 활동하여 오던중 지난 8월 제일(在日) 60만 교포를 위한

선교사로 선택되어 훈련중이며 이 종영 목사 역시 인도네시아 파송 선교사 후보로 훈련을 받고 있다.

한편 미국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고 지난 6월초에 귀국한 신 성종 강도사는 현재 대학부 지도를 맡고 있다.

인도네시아 목사 본교회 내방

제 2회 선교하기대학원에 참석하기 위하여 인도네시아에서 유학온 메삭(S. J. Mesach)목사와 수도포(Sudopo)목사가 김광철 회장의 초청으로 지난 9월 12일 우리교회를 방문, 환영만찬 초대에 참석했다. 이 두분 목사님은 서만수 선교사와 친분이 두터워 복음전선에서 많은 협력을 하고 있는 분들이다.

수도C.E. 등산대회서 1등

우리교회 청년부는 지난 10월 2일 수도C.E. (회장 서동석) 주최로 실시한 등산대회에 참가하여 1등을 차지, 상장과 트로피를 받았다.

향 상 음 악 회

지난 9월 14일 두번째 대학부 향 상음악회가 열렸다. 내외 학생 및 일반 교우 400여명이 모인 가운데 50여명의 우리교회 대학부 성가대에 의해 발표된 이날의 합창곡은 가브리엘 휘테 작품의 레퀴엠(Requiem)이었다. 연례의 이 행사는 향상하겠다는 결의한 학구적인 태도로 태원은 물론 저취를 맡은 김 중석 선생과 반주를 맡은 이 승순 선생 외에 위에서 여러가지로 도와준 분들의 힘이 컸다.

◇ 설 교 ◇



추수감사절에 즈음하여

신 성 중 강도사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살전 5:18>

구약 성서에는 감사란 말이 야다(yada)와 토다(to-da)란 말로 표현되었고, 신약 성서에는 유카리스테오(eucharis teuo)와 유카리스티아(eucharistia) 외에 엑소몰로게오(exomologeō)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감사의 특징은 무엇인가? 본문(살전5:18)에 기록된 대로 감사는 첫째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요 그 마음에 드시는 것이다. 두번째로 감사를 소홀히 하는 것은 죄이다(눅 17:16; 롬 1:21). 세번째로 감사는 언제나 하늘에서의 찬미의 중요한 부분(제 4:9; 7:12; 11:17)이다. 네번째로 감사는 성도들이 계속해서 드려야 할 것(고전 1:4; 골 4:2)이며 어떠한 환경에서든(빌 4:6) 하나님께 그리스도를 통하여(골 3:17) 드려야 할 성질의 것이다. 다섯번째로 감사는 죄의 해독제(엡 3:7)로써 범죄를 예방시켜 준다는 점이다.

그러면 이처럼 귀한 감사를 언제 드려야 하는가? 우리 주님께서 감사를 드린 것을 보면 첫째로 육신의 음식을 위하여 감사를 드렸으며(요 6:11, 23), 두번째는 기도가 응답된 것에 대하여 감사하였으며(요 11:41). 세번째로 주님의 성찬을 가지시면서 감사하였다(눅 22:17, 19; 비교, 고전 11:24). 그밖에도 감사를 요구하는 육체적 축복으로는 ①치유(눅 17:16) ②음식(요 6:11, 23; 행 27:35; 롬 14:6; 고전 10:30; 딤후 4:3이하) ③영감(행 24:2 이하) ④재난에서의 구출(행 27:35; 28:15) 등을 들 수 있다.

바울은 사도들 중에서도 특별히 감사라는 표현을 많이 하였다. 그는 모든 것을 감사에서 시작하여 감사로 마친 사람이다. 이제 바울의 감사를 두가지 면에서 즉 교회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감사와 개인적 축복에 대한 감사를 나누어 살펴보자. 첫째 교회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하여 바울 사도는 ①신앙의 신포에 대한 감사(롬 1:8; 골 1:3이하; 살전 1:2; 비교, 엡 1:15하); ②주신바 은혜에 대한 감사(고전 1:4; 고후 1:11; 4:15) ③전파한 말씀을 교회가 받아 들인대 대한 감사(살전 2:13) ④복음안에서의 사립에 대한 감사(빌 1:3-5) ⑤은혜안에서의 성장에 대한 감사(살후 1:3) ⑥선택의 지식에 대한 감사(살후 2:13) ⑦영적 축복에 대한 감사(골 1:12) ⑧풍성한 연보에 대한 감사(고후 9:11이하) ⑨새 신자들에 대한 감사(살전 3:9) 등을 하였다. 개인적 감사로서는 ①

속박에서의 구출에 대한 감사(롬 7:25) ②회생적 봉사에 대한 감사(롬 16:4) ③어떤 일을 맡지 않은 데 대한 감사(고전 1:14) ④그에게 준 선물에 대한 감사(고전 14:18) ⑤친구의 영적 성장에 대한 감사(몬 1:4이하) 등이 있다.

이렇게 살펴 볼 때 감사는 우리 주님과 바울의 생활의 전부라고 할 만큼 모든 면에 뻗어 있다. 그러나 감사는 현대인들이, 특별히 우리 한국의 교인들이 있어 버린 단어 중 하나가 된 느낌이 없지 않다. 물론 여기에는 우리의 역사적 환경의 탓도 없는 것은 아니다. 감사 없는 기독교인이 있을 수 없다면 추수감사절에 즈음하여 우리 생활에 대한 새로운 반성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감사란 기독교인의 생활의 시작이며 끝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데 대한 감사없이 윤리적 생활이나 봉사로 있을 수 없다. 남의 작은 친절에 대하여서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참으로 아쉽다. 우리가 서양사람들과 단 5분이라도 대화해 본다면 그동안 얼마나 많은 "Thank you(감사합니다)"란 말이 나오게 될까 알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흔히 감사란 기리가 먼 사람들과만 사용하는 말이지 부모 자식 사이나 부부 사이처럼 그리고 측마지우 사이엔 사용하지 않는다고 오해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큰 잘못이다. 감사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많이 그리고 자주 해야 한다. 필자는 감사를 몇 번 했다가 "뭘, 우리끼리" "미국물이 들었군!" 등의 오해를 받아 결국 중지하고 말았지만 이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아니다. 가깝다면 하나님보다 더 가까운 분이 누가 있으며 도와주었다면 하나님보다 더 도와준 분이 어디 있겠는가? 눈에 보이는 친구에게 그리고 부모에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말은 빨간 거짓말이다. 작은 친절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큰 것에도 감사를 못한다. 우리는 왜 우리 주님의, 그리고 바울 사도의 감사생활을 본받지 않는가?

추수감사절에 즈음하여 감사생활에 대한 새로운 기회가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게 되는 것이다.

어느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다.

"꽃밭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하면 달빛을 주실 것이요.

달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하면 햇빛을 주실 것이다.

감사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우리 육신의 부모의 은혜를 감사하는 자녀를 부모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는 것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 이것이 다름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 감사에서 출발한 성도만이 순종과 사랑의 생활을 할 수 있다. 이 감사만이, 성도들을 보다 깊은 기쁨과 행복을 그리고 봉사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 감사는 하나님의 뜻
- 감사로 시작하여 감사로 마친 바울—감사는 기독교인의 생활의 시작이며 끝
- 한국 교인들이 잊은 단어중 하나—감사
- 가까운 사이일수록 감사의 마음 필요

□ '75년을 바라보며 □

당회장에게서 듣는다

◇...「충현」지 제11호 특집 기획의 하나로, 1975년과 다가올 본교회 설립 30주년을 향함...◇

◇...당회장 김 창인 목사의 의도하는 바 포부가 어떤 것인지를, 본「충현」지 간사인 조...◇

◇...선근 집사님과의 대담으로 들어 본 것을 여기 간추려 실는다.◇

조 : 오늘 뵙기를 원한 것은, 이미 올해도 종반기에 접어들어, 명년도의 사업계획을 위하여 나아가서는 설립 30주년을 향한 장기 목표 설정을 위하여 몇 말씀 물어보았으면 해합니다. 성년을 맞은 우리교회는 여러 모양으로 눈부신 발전을 해 왔는데, 20여년간 충현교회를 이끌어 오신 목사의 변함 없는 목회방침은 무엇이었습니까?

김목사 : 우리교회의 성구인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시 18:1)의 신앙고백 그대로..... 하나님을 높이는 심정으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는 효자신자, 남들에게는 유익되는 신자, 후손에게 복을 물려주는 신자들이 되며, 천국 일꾼양성을 목표로 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그 뜻을 따른 것뿐이다.

조 : 앞으로 설립 30주년이 되는 1983년을 향한 우리교회의 방향은 어떤 목표에 집약되어야 하리라 생각하십니까?

김목사 : 첫째로는 성경학원의 올바른 운영으로써 순수하고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말씀 중에 거하며 열매 맺는 일, 그리고 좀더 알찬 전교인의 단계훈련 실시와 지도자양성부에 역점을 두고 있고, 둘째는 어느 것 못지 않게 성전건축에 힘을 쏟을 생각이다. 세계로 해외선교에 계속 눈을 돌려 내년까지 세 분의 선교사 파송을 원하는데, 3년에 한 분씩 정도로 계속 파송, 30주년까지는 최소한 다섯 분의 선교사를 확보할 생각이다.

조 : 금년 당회장께서 특별히 관심을 두셨던 사업은 어떤 것이며, 이에 대한 성과는 어느 정도로 나타났습니까?

김목사 : 사업이라기보다는, 이 해의 목표를, 우리 성도와 교회가 최고의 사람들 최고의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기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자고 강조하였는데, 글썽 그 결과가 어떻다고 뚜렷하게 말할 수가 없다.

조 : 1974년에 특히 미진했던 사업과 연관하여 내년에 우리교회가 집중적으로 힘을 기울였으면 하는 사업은 무엇이며, 교육·국내외전도·교인훈련·성전건축 등에 걸쳐 하고 싶으신 말씀을 차례로 들려 주셨으면 합니다.

김목사 : 계속 성전건축을 구상 중이다. 주님이 허락하시면, 내년 안으로 성전 기초라도 놓고 싶고, 교역자 사택으로서의 아파트건축 나아가서는 수양관건축도 시급히 착수해야 될 과제라고 본다.

① 교육부문—성경학원을 계속 강화하고 주일학교 교육장소문제에도 계속 신경을 쓰겠다. 그리고 앞으로는 성경학원을 위한 기숙사와 주일학교를 위한 각종 교실 내지 체육관까지 달린 교육관건축을 꿈꾸고 있다.

② 국내외전도—국내전도문제는 산업전도 등 특수

지역에 한하고, 서울이나 지방에 개척교회를 세우는 일은 당분간 중지하겠다. 해외선교에 더 비중을 두겠으며, 일본국 선교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된다. 흥 종만 목사님을 내년도에 일본에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은 거의 확정적이다.

③ 교인훈련—단계훈련은 계속 실시해야겠다. 다만 한 사람이 너무 여러 번 참가해야 되는 번거로움을 피하게 실무진으로 하여금 개선책을 연구하게 할 방침이다.

④ 성전건축—우선은 헌기처지를 중심으로 확대시켜 볼 생각이다. 또한 영동지구에 대한 계획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전진자세이다. 완공까지는 약 10억원이란 엄청난 비용이 들겠는데, 하나님만 허락하시면, 가장 어려운 일이 가장 쉽게 해결되는 방법도 있다. 나의 생전에 준공을 못 본다 해도 최선을 다하고 그 일에 방향만이라도 제시하고 싶다.

조 : 당회장께서 목회방침으로 삼고 계시는바 이상적인 충현의 천국 일꾼상을 좀 구체적으로 그 목적·대상 등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김목사 : 이 일의 원래 의도는 신앙인격을 키우는 교수를 양성하자는 것이었다. 천국 일꾼의 대상은, 크게는 교인 전체 그리고 자라나는 세대, 다음은 특수한 사람을 가리키는데, 이상적인 천국의 일꾼상을 몇가지로 요약하면, ① 교만·욕심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일꾼 ② 말씀에 ‘아멘’하여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일꾼 ③ 무슨 일이나 주님이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마라고 이를 위해 기도하는 일꾼 ④ 천국에 소망을 두고 항상 기뻐하며 주를 위하여 순교도 각오하여 믿음의 열매를 지키는 일꾼이다. 그리고 앞으로의 선교사 파송은, 세계정세를 보아, 꼭 목사가 아니라도(정규 신학교육을 받지 않았어도) 소명감이 투철한 이로서 자기의 전공학문·기술분야를 이용, 자립의 능력을 갖춘 일꾼이라면 훈련시켜 세계의 복음화에 이바지하게 하려 한다.

조 : 가령, 어렸을 때부터 중·고등부시절부터 선교사 되는 것을 결심한 학생들의 계속적인 지도와 교육, 양성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셨습니까?

김목사 : 당장 구체적인 내용을 수는 없으나, 이번에 선교사무절도 생겼으니 현지 자료를 수집·소개하고 종합적인 연구소가 되게 해야겠다.

조 : 지난 여름부터 대두되는 주일학교 영아부 신설문제에 대해 교회에서 어떤 계획이라도 있으십니까?

김목사 : 역시 시급한 문제 중의 하나인데 적합한 장소와 어린이·어머니를 가르칠 수 있는 지도자 등 문제가 있으므로, 지금은 마음만 있고 기도해 보는 중이다. 한국 교회의 약점이 바로 취학 전 어린이들을 위한 특별한 교육계획이 없다는 점인데 사실 유치부까지도 전문적인 교육목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기록 : 김 회숙 기자>

우리는 최선을 다하였는가

☞ 앞으로 향하기 위하여 뒤를 본다

☞ 1974년, 1975년, 그리고 1983년

천국 일꾼을 키우며 복음 전하는 일과 성전건축을 위하여 과연 우리에게 맡겨 주신 달란트 모두를 아깝지 않게 쏟아부어 맡은 자로서의 최선을 다한 한 해였는지 돌아보면 두렵고 떨리기까지 하다. 그러나 지난 날보다는 지금이, 지금보다는 앞으로가 더 중요하기에 굳이 지나온 날들을 돌아 볼 필요는 없겠지만 오늘의 우리를 바로 알 수 있고, 또 내일을 위하여라면 단 한번만 지나온 날들을 겸손하게 돌아보고 스스로를 가다듬고 새해를 맞이함이 좋으리라.

이런 뜻에서 「충현」 제11호는 당회 산하 각 기관의 지도교역자나 기관장 혹은 실무자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1974년을 돌아보고 1975년 각 기관의 사업계획에 앞서 새해에는 더욱 알찬 정진을 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본 란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설립 30주년이 되는 1983년을 가늠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도 또한 간절하다. <편집실>

5,000 성도의 영적 성장

· 1974년의 각 기관의 목표 ·

- △ 구역을 통한 교회의 정확한 인적현황 파악/구역권찰회
- △ 집중적인 군인전도·전국과 세계를 향한 방종전도/전도부
- △ 제일(在日) 60만 동포의 복음화/해외복음선교회
- △ 전도비만 부담하는 간접전도에서 회원이 직접 참여하는 직접전도로 전환/남전도회
- △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 되자/여전도회
- △ 하나님께 영광, 성도에게 은혜/여성 성가대
- △ 현 위치(광주군 초월면 대성령리)에서의 공원묘지 허가 획득/동산관리위원회
- △ 가르치소서·깨닫게 하소서·행하게 하소서/교육위원회
- △ 5,000성도의 영적성장/성경학원
- △ 학생 배가운동/장년부
- △ 신한 청지기로 서로 봉사하자/청년부
- △ 진리의 대학부(딤후 2:15)/대학부
- △ 담대한 주의 종이 되자/고등부
- △ 배우고 확산하며 활기있는 중등부가 되자/중등부
- △ 구원의 확신과 영적 성장/초등부
- △ 천국일꾼을 키우자/유년부
- △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유치부
- △ 최저 80% 등반/새신자부

통일촌교회를 중심한 군인전도

· 1974년에 역점을 두었던 사업 ·

- ※ 구역 담당자들을 통하여 구역 내의 모든 문제를 신속 정확하게 보고하게 하는 일과 이웃 구역과 깊은 친교를 맺음으로 모든 일에 구역과 구역이 서로 협조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었다/구역권찰회

- ※ 통일촌교회를 중심으로 실시한 군인전도/전도부
- ※ 제일(在日) 동포를 위한 선교사 선발, 인도네시아 주재 한국 선교부 본부를 위한 기지 확보 및 해외복음선교회 사무실을 마련하여 행정관계를 재정비하는 일이었다/해외복음선교회
- ※ 회원으로만 구성된 무의촌 무료진료를 통한 전도환동을 처음 시작하였다/남전도회
- ※ 전방 2개 부대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물심양면으로 도와 전도활동을 한 일이었다/여전도회
- ※ 일선 장병들을 위한 찬송가, 녹음 및 엑스플로'74를 위한 연합성가/여성성가대
- ※ 공원 묘지 허가 수속에 있어 인근 주민들의 동의를 받는 일/동산관리위원회
- ※ 천국 일꾼을 키우는 일과 십자가정병 훈련 및 하늘나라 합격자가 되도록 학생들을 양육하는 일이었다/교육위원회
- ※ 성경학원과 지도자 양성부의 질적 강화와 제적·평신도 훈련, 농어촌 지도자 훈련 및 도서실을 보다 충실하게 키우고자 하였다/성경학원
- ※ 온 교우들에게 노년부의 설립 목적을 알려 관심을 갖도록 하는 일과 만70세 이상의 어르신들에 대한 신상을 파악하여 생일축하 카드를 발송하는 일이었다/노년부
- ※ 축호전도/장년부
- ※ 신한 청지기로 교회와 각 분야에서 봉사하며 전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청년부
- ※ 면려회 체제에서 주일학교 체제로 전환하는 일과 모든 학생이 매일 성경을 읽도록 함으로 주일신자에게 매일신자로 변화되게 하는 일이었다.
- 또한 찬송의 생활화 및 생활의 찬송화를 위하여 젊은이들이 어디에서나 부를 수 있는 110여곡 정도의 젊은이를 위한 노래집을 펴내며 적은 그룹운동을 양성화, 지원하고 대학부의 구역예배가 되게 토요집회를 조별중심으로 모이게 하는 일이었다/대학부
- ※ 성경 교수법의 개선과 찬양예배 때에 더욱 충실한

□ 특집 / 우리는 최선을 다하였는가 · 1974년

앞으로 향하기 위하여 뒤를 본다

- 찬양을 올리도록 힘쓰는 일이었다 / 고등부
- ※ 성경교수의 철저, 동반자와 장기 결석자에 대한 신속한 처리, 학생 실태의 정확한 파악 및 행정기능의 강화에 역점을 두었다 / 초등부
- ※ 하기수양회와 개인전도 훈련이었다 / 중등부
- ※ 출석률을 높이는 것이었다 / 유년부
- ※ 예배 분위기를 개선하고 태려오기(인도)를 통한 수적인 부흥이었다 / 유치부
- ※ 신입생들에 대한 철저한 심방과 좋은 예배 분위기를 위한 환경정리였다 / 새신자부

구역행정 능력의 향상

- 1974년에 크게 성장한 부문과 원인 ·
- △ 구역행정을 체계화하고 각종 문서의 개선으로 구역행정 능력을 향상시킨 일과 구역사이에 친교와 협조가 이루어진 일이다 / 구역권찰회
- △ 통일촌 교회에서 있었던 군중하사관 수련회와 농어촌 전도대 파송 / 전도부
- △ 3년동안 인도네시아 선교에 탐과 눈물과 피를 쏟았던 서만수 선교사의 일시 귀국 부흥회로 인도네시아 선교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하고 해외 선교에 대한 교인들의 관심을 높인 것 / 해외복음선교회
- △ 유급 전도인을 두어 매월 2~30명의 결신자를 얻고 3,000매의 전도지를 배포하고 시내 낙원교회와 자매결연을 맺어 여러가지로 도왔다 / 남전도회
- △ 1973년에 비하여 군인전도의 범위 · 예산 · 활동에 있어 더욱 활발하여졌다. / 여전도회
- △ 교우들을 위한 단기훈련 및 여름행사의 기동화였다 / 교육위원회
- △ 성경학원 사업 진전에 걸쳐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고 보며 이는 우리교회가 참되고 실력있는 전국 일꾼을 양성하는 데 있어 보다 큰 관심과 세밀한 계획과 적극적인 실천의 결과라고 본다 / 성경학원
- △ 8개조로 나뉜 조장 중심의 조단위 운영 / 청년부
- ※ 목표고 결의를 가진 대학부로 이끌려는 시도가 약간의 시행착오는 있었지만 조금은 이루어진 것 같다 / 대학부
- △ 성경공부 시간을 한시간 더 늘이고, 주입식 교육방법에서 토의식 방법으로 바꾸어 성경공부에 있어 이전보다 더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 / 고등부
- △ 이성이나 친구 및 실제생활과 학교 학습에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 학생들을 적절하게 지도한 것이다 / 중등부
- △ 3년 전부터 실시한 학년과장 중심의 운영이 본 제도에 올라 효과적인 학급 관리와 학생들의 개별지도를 실시할 수 있는 준비가 되고 예비 공과공부의 철저로 공과공부에 충실할 기할 수 있게 되었다.
- ※ 이는 각 학년과장을 중심한 각반 담임의 협력과 지도교역자의 기도와 연구노력의 결과이다 / 초등부
- △ 헌금의 열의가 높아진 것이다 / 유년부
- △ 수적인 증가를 볼 수 있겠는데 이는 교사들의 깊은 관심과 지도 결과라고 본다 / 유치부

△ 지난 해보다 동반율이 높아졌으며 교사들의 자질도 많이 향상되었다 / 새신자부

올해도 꿈속에 잠겨버린 수양관 건립

- 1974년에 특히 미진한 사업과 원인 ·
- ※ 교회의 인적현황을 신속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웠는데 교인들의 잦은 이동과 일부 담당자들의 이에 대한 보고의 열의가 적었던 것이 그 원인으로 본다 / 구역권찰회
- ※ 군중하사관들을 위한 설교집을 발행하려 하였으나 집필자 선정관계로 세해로 미루게 되었다 / 전도부
- ※ 선교회원 1,000명 목표를 이루지 못하였는데 이는 아직까지도 해외 선교에 대한 중요성을 절실하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 교인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 해외복음선교회
- ※ 우리교회 남자 제직 전원을 회원으로 가입시키지 못한 것이다 / 남전도회
- ※ 전도사 파송 요청과 대외의 재정적인 도움 요청에 대부분이 응하지 못하였다 / 여전도회
- ※ 연습시간의 부족으로 목적했던 것 만큼의 성과를 얻지 못했다 / 여성성가대
- ※ 공원묘지 허가를 얻지 못하여 제단 본연의 사업을 하지 못하고 종전의 허가 범위에서 사업을 실시했다 / 동산관리위원회
- ※ 수양관 건립이 금년에도 이루어지지 못하였는데 이는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과 적극성의 결여에다 재정난이 원인이라고 본다 / 교육위원회
- ※ 올해 세로이 세운 부서로 아직 주일학교 체제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매 주일마다 모일 수 없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운영이 부진하였다 / 노년부
- ※ 학생 배가운동이 극히 저조하였는데 그 원인으로서는 지도력이 부족함에도 있겠지만 성경공부에 대한 장년들의 필요성과 인식이 부족하며 대상 학생의 대다수가 다른 기관에서 봉사하고 자지활동과 친교의 시간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 장년부
- ※ 전담 교역자가 없어 새신자 육성이 매우 부진하였다 / 청년부
- ※ 아직 먼터회 중심의 대학부가 주일학교 체제로 완전히 바뀌려던 앞으로 5~10년은 걸리리라고 본다.
- ※ 원인은 먼터회 중심의 그릇된 전통에서 선배들이나 임원들의 사고방식이 고쳐지지 못하고 있으며 또 교사의 수도 2/3정도 모자라는 현재의 사정으로는 매우 어렵다.
- ※ 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대학부에는 지도자 한 사람만 좋으면 된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에도 원인은 있다고 본다 / 대학부
- ※ 신입생 관리와 목요회 사업이 부진하였다고 보는데 신입생 관리는 교사 부족과 신입생 · 교실이 없기 때문이며 목요회는 학생들이 뜨거운 전도의 사명감을 느끼지 못하는 데 있는 것 같다 / 고등부
- ※ 학생들이 학교에서 그룹활동 하기가 어렵고 또 지도교사가 충분한 시간을 낼 수 없었기 때문에 학원

□ 특집/우리는 최선을 다하자 · 1975년 · 1983년

☞ 우리에게는 꿈이 있다 1975년

전도는 크게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중등부

※ 교수법과 교육보조재의 개선에 있어 별 진전이 없었고 학생들의 교회와 가정생활 지도에 있어서도 만족스럽지 못하였다.

이는 이런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도자가 없고 아직도 행정체제가 만족스러울 만큼 안정되지 못한 데 있다고 본다/초등부

※ 교사와 학생들의 지각이 많고 50% 이상이 대학생 교사이기 때문에 학생심방이 매우 부진했다/유년부

※ 각종 대회에 어린이들의 참가율이 부진한데 교사의 열심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가정의 협조와 지도가 잘 안되기 때문인 것으로 본다/유치부

※ 여름학교나 겨울학교 다음에는 학생 출석률이 저하되었고 교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연구수업과 타고 건학동이 부진하였는데 이는 교사 부족으로 심방에 우선하게 된 결과이다/새신자부

인도네시아와 일본에 선교사 증파

· 1974년에 비해 1975년에 역점 두고픈 사업 ·

△ 각 구역의 보고서 제출을 정확하고도 신속하게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서 담당 구역자가 적절하고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구역원회

△ 군인전도를 치중하여 그 생명을 얻는 작전에 역점을 두려고 한다/전도부

△ 선교사 증파(인도네시아에 이 종영 선교사·일본에 홍 종만 선교사), 주일학교 각부 내에 선교부 설치 선교회 실행위원을 대상으로 연 2회 선교 세미나 실시 및 전 교우들을 대상으로 연 1회 선교 부흥회 실시/해의복음선교회

△ 무료진료를 통한 복음 전파와 회원을 증원하여 더 많은 지교회와 가지고 회원 전원이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어야 하겠다/남전도회

△ 군인전도에 좀더 적극적인 전도활동을 전개하려 한다/여전도회

△ 유능하고 젊은 대원들이 많이 입대하도록 노력할 것이다/여성성가대

△ 인근 주민의 비협조로 현 위치의 공원묘지 허가가 어려우므로 새 묘지용지를 구입, 수속하여 묘지 조성에 착수/동산관리위원회

△ 수양관을 세우기 위한 땅이라도 마련하고 신축공사 준비를 하였으면 하는데, 일반 교우들의 기도생활과 훈련을 위해 해마다 우리교회 수양관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기 때문이다/교육위원회

△ 이제까지의 실제 사업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위협선 발하여 실질적이며 효과적인 계획하에 평신도·입원 훈련과 성경학원, 지도자 양성부, 농어촌 지도자 훈련 및 도서실 운영에 중점을 둘 것이다/성경학원

△ 우선적으로 노년부를 운영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갖추고 조직 및 체제를 갖추도록 하겠다.

만약 금년처럼 장소와 시간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운영한다면 설립의 본뜻과는 달리 유명무실해지리라 고 본다/노년부

△ 성경공부와 학생 배가운데 힘써 전도하며 봉사하는 장년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장년부

△ 10명 미만의 조편성으로 조활동을 강화하고 여호수 아전도대의 결성으로 전 회원을 전도요원화 하여 새신자와 기신자의 분리로 교육체제를 확립/청년부

△ 1975년은 대학부의 방향 설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해가 될 것이다.

현재 유·초등부에서 교사를 겸하고 있는 「가르치는 대학생」들이 주일학교에서 물러나 「배우는 대학생」으로, 전례회 중심의 「일하는 대학생」이 주일학교 중심의 「배우는 대학생」으로 탈바꿈을 시도하는 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직 「배우는 대학생」으로의 전환에 역점을 둘 것인데 그 이유는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고등학교로써 끝내던 주일학교 교육을 4년 더 연장시켜 실시하지 않으면 종현의 교육 목표인 「친구 일꾼을 키우는 일」에 큰 차질이 생길 뿐 아니라 그 수준이 너무 낮아 급변하는 세계에서 리더쉽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대학부

△ 금년에 시작한 조별 토의식 성경공부 방법을 완전한 제도에 올리기 위하여 주력할 것이다/고등부

△ 사명의식을 갖도록 교사의 질적향상에 힘쓰고 학생들의 전도훈련에도 더욱 힘쓸 것이다/중등부
배우며 가르치는 교사로써 교사의 권위를 회복하며 과별 운영을 더욱 강화하여 효율적인 학급운영으로 어린이를 개별적으로 이해하고 개별적으로 지도하여 배운 말씀 그대로 살아 나가는 어린이가 되도록 하는 데 힘쓰겠다.

이는 지식전달 위주로 편중된 교육에서 벗어나 실천하는 신앙인으로 키우기 위함이다/초등부

△ 보내 준 어린 심령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말씀을 통한 철저한 신앙 생활 교육/유년부

△ 배우며 가르치는 교사가 되며 소명감을 갖고 믿음과 성실로 봉사해야 되겠기에 교사의 자질향상에 힘쓸 것이며 가정에서 아직 특활로써의 각종 대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각종 대회에 많은 어린이가 참가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유치부

△ 개인전도 및 노방전도에 힘쓰고 공과공부 시간에 시청각교재를 이용하도록 할 것이며 연초에는 교사 심방을 실시함과 아울러 새로 나오는 어린이 모두를 동반시키도록 노력하겠다.

이는 새신자 육성이 교회 발전에 깊은 관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새신자부

동남아의 복음화

· 1983년의 우리교회 목표를 설정한다면 ·

※ 현 5천 성도의 배가운동으로 1만의 종현성도 확보에 박차를 가하였으면 한다/전도부

※ 선교사 증파(1983년까지 5가족 파송계획)와 성경학원을 통해 선교사 후보생 교육실시/해의복음선교회

※ 종현의 2세를 위한 좋은 시설의 교육관과 수양관 건립/여전도회

※ 각종 악기를 총동원하고 인간 최대의 기술을 발휘

□ 특집/우리는 최선을 다하였는가 종합평가 □

- 해서 예배를 드려보고 싶다/여성성가대
- ※ 새로운 교회와 교육관의 현대화·교육하는 교회·선교하는 교회/교육위원회
 - ※ 교회내 문서전도와 공보활동을 단일화 기구설치·5만장서 보유의 도서관/성경학원
 - ※ 선교하는 교회·교육하는 교회·구제하는 교회/노년부
 - ※ 선교하는 교회·교육하는 교회/장년부
 - ※ 동남아의 복음화(청소년 교육에 좀더 많은 인원과 재정을 투자하여 한국 복음화의 센터는 물론 중원이 동남아 선교의 센터가 되었으면 좋겠다)/대학부
 - ※ 복음을 전하는 교회/고등부
 - ※ 우수한 시설·철저한 교육/중등부
 - ※ 해외선교에 총력을 기울이자/초등부
 - ※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유년부
 - ※ 교육전반에 걸친 커리큘럼에는 본 교회 교육위원회의 매스터 플랜에 따라야 하겠지만 주간(週間) 교육으로서의 유치원 개설도 한민 생각해 볼 문제/유치부
 - ※ 선교하는 교회/새신자부
- ... 성가부·제일성가대·제정위원회·건축위원회는 자료 미착으로 실지 못하였음.

□ 편집자도 한마디 □

□ 각기 마비되거나 기형의 지체(肢體)는 아닌지 돌아보자.

우리교회의 당회 산하 기관은 주일학교 작부를 포함하여 무려 23개에 달한다.

5천여 성도에게 직접 간접으로 연관을 맺고 증추신경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이 23개의 공식적인 조직은 그 어느것 하나라도 우연히 생긴 것은 없고 무엇인가 절실한 이유와 필요성에 의해서 생겨났을 것이 분명하다.

바꾸어 말하면, 자기 시작될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의 각 지체로서 맡겨진 책임과 이루어야 할 목표를 가지고 세워졌을 것이다.

이러한 여러 지체중 한 지체라도 마땅히 자기가 할 바를 알지 못하고 엉뚱하게도 다른 지체가 하여야 할 일을 하고 있다거나 아예 움직이지도 않는다고 하면 그 지체는 무엇인가 잘못된 기형의 지체이거나 병들어 치료를 받아야 할 지체임이 분명하다.

가령 우리교회의 23개 조직을 23가지의 지체로 본다면 우리교회는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23가지의 분담된 책임과 부분적인 목표가 세워질 수 있을 것이다.

개괄적이고 간접적인 것이긴 하지만 이번에 조사된 당회 산하 각 기관의 10월까지의 사업진행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전체(교회 또는 성도)로서의 사명감(복음전파)과 어떻게 하여야 할 것(천국 일꾼 양성)은 비교적 분명하게 압고 있으나 자기 한 지체로서의 지체가

하여야 할 일과 방법에 대하여는 분명히 알지 못하고 있는 곳도 있다.

그러므로 1975년의 사업계획을 착수하기 전에 다시금 스스로는 지체의 어느 부분에 속하는지 자기 생각해 보고 상호 격렬한 유기적인 관계와 조화로 현재의 종적인 관계와 같이 긴밀한 획적인 관계를 이룰 때 전체가 강건하여질 수 있을 것이다. 23개 조직이 두 눈이거나 모두 발일 수 없는 것이다.

□ 기복(起伏)이 있는 천국 일꾼 양성의 현장

시대적으로 천국 일꾼 양성이 시급하고도 중요한 임을 깨닫고 우리교회가 「천국일꾼 양성」의 첫 발을 올린 것은 이미 10년 전 일이다.

천국일꾼 양성의 의미를 여러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번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10부 주일학교를 살펴보면 새신자로부터 노년부에 이르는 각 부가 세대적인 차이나 사회적 신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의 적합한 교육지침과 부분적인 목표가 있어야 하리라 보는데 이러한 것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대조적인 곳도 있다.

만약 천국 일꾼 양성의 의미를 주일학교에 국한시킨다면 마치 사다리를 오를 때처럼 각 부는 부분적으로 완성을 이루어 다음 단계에 연결시키고 나아가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목표에 이르러야 된다고 볼 때 그 어느 한 부분의 미완성은 전체의 미완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연하면, 천국 일꾼 양성의 목표를 단계마다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해 줌으로써 총화의 구실질이 쉽게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필요를 절실히 느끼게 된다.

□ 비전(vision)은 있는가?

우리교회의 비전은 있는가 라는 물음에 우리는 이번 조사에서 분명한 답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우리교회는 분명한 비전이 있다. 우리교회 설립 이래 오늘날까지의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오늘날의 이 비전을 주님께서는 해가 흐를수록 점차 확실하게 드러내어 보여주시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다.

천국 일꾼을 양성하게 하시고 국내의 많은 개척교회와 농어촌 진도대 파송 및 각종 전도활동을 통하여 훈련을 쌓게 하시고 충분한 실력을 쌓을 수 있도록 성경학원을 허락하신 일이 바로 그것이다.

그럼 1983년을 향한 우리교회의 비전은 무엇인가? 그것은 해의선교이다. 일차적으로 동남아를 복음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세계를 향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언젠가는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명령대로 증인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가 분명한 비전이 있는 한 우리는 다음 대에게 무엇인가 분명하게 부탁할 수 있고 또한 우리의 유업을 자랑스럽게 물려줄 수 있을 것이며 물려주는 세대와 물려받는 세대가 서로 「할렐루야! 아멘」하고 화답할 수 있을 것이다.

□ 주일학교 교육 □

학생 심방의 실태와 문제점

- ◇...심방 상황은 주교 1부와 2부가 약간 다르며, 부서에 따라서도 약간의 특색을 제각기 보유하고...◇
 ◇...있다. 여기서는 그 상황을 대체적으로 설명하고 각 부서의 특색있는 점들을 조사하는 한편 좀...◇
 ◇...더 효과적인 심방의 방향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

조사에 따르면, 보통 1년에 한번, 많은 부서는 이번까지의 정기심방계획을 갖고 있으며 주교1부에서는 2~3주 결석자에게 담당교사가 수시로, 주교2부에서는 심방부원이나 동료학생들이 집으로 직접 찾아가거나 전화를 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

심방의 효과면에서 보면 비교적 양호한 편으로 나타나 있으며 특히 유년부 등에서는 교사의 열심도에 따라서 출석율이 비례적으로 올라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각 부서들의 특색을 살펴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유치부: 대심방이 석달에 한번으로 정해져 있어 1년에 4번으로 가장 많으나 미취학 아동이라 유동성이 많고 어려운 점이 적지않아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다. 그 가장 큰 이유로 서류의 미구비를 들 수 있다. 그 외에 2~3주 결석자를 담임이 직접 방문하게 되어 있고 특별 유교자를 지도교역자가 심방한다.

유·초등부: 정기적인 대심방은 4월과 9월에 각각 있으며 전체적인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는 심방과에서 심방의 피서를 결석학생 담임앞으로 띄우면 담임이 결석학생에 대한 심방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시 보고하게 되어 있다.

새신자부: 심방이 생명이 되어서 되어 있어 교사들이 거의 매주 심방을 나간다. 첫주에 나온 학생과 함께 심방을 가는 일과 결석 심방을 가는 두가지 방법을 병행하고 있다. 2주 동안의 가르침 속에서 모두를 동반시키는 어렵다고 하는데 이는 순회 교인(?)이 많고 안 믿는 가정의 어린이들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본다. 동반율이 곧 심방효과율이라고 볼 수 있으며 동반율은 약 60%정도이다.

중등부: 윤 가을부터 심방계획이 변경되었다. 신입원전들의 열성으로 전에는 없었던 정기심방을 1년에 두번, 봄과 가을로 정했으며 2주 결석자에게는 엽서를 발송할 계획이란다. 그러나 심방부 교구의 임무보다 학생 등록카드 정리, 출석율 그래프 그리기 등의 다른 일을 겸하고 있어 꽤 부담이 되는 것 같다.

고등부: 고등부 또한 올해 가을 학기부터 심방부의 방점을 개편했다. 일제적인 대심방은 하지수양회 전에 한번 있으며 그외에는 매월 첫주에 조장 책임하에 실시된다. 그러나 대의원들의 불참과 체제의 미완성으로 인해 제대로 효과를 못 거두고 있는 실정이다. 또

한 3주 이상을 결석한 학생에게는 심방부에서 엽서를 발송한다.

대학부: 종전까지만 해도 자체내에 심방부가 없었으며 서기가 대신 맡아 왔었다. 장기결석자에 대해 직접 방문하는 일과 전화방문하는 두가지 방법을 써 왔는데 일반적으로는 각 조장들이 엽서를 발송하는 일을 맡아 왔다. 앞으로는 새로 생긴 심방부에서 좀 더 세밀한 계획을 가지고 임하리라 한다.

이상의 조사 결과 대부분의 부서에서 심방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고는 있었으나, 그 단계에서 그치고 말아, 계획이 제대로 실천되지 않고 있었다. 그러던 그 이유를 분석해 보고 해결책을 찾아보기로 하자.

첫째로 서류가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았다. 심방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성하게 되면 의무적으로라도 심방을 하게 될 것이다.

둘째로 책임감을 고취시키도록 해야 한다. 각부마다 장점들을 보유하고 있으나 계획대로 실행이 되지 않는 것은 책임감이 해이해진 것으로도 볼 수가 있다. 물론 위에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일선에 나서서 수고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또한 각부의 심방부끼리의 모임을 갖고 서로의 상황을 토의하고 타부의 장점을 배우는 열심도 필요하다고 본다.

세째로 체제의 정비를 들 수 있겠다. 앞에서 지적한 대로 서류가 구비되어야 하나 체제가 완전하지 않으면 유명무실하게 되어 버릴 수밖에 없다. 각부 조사 결과 타부의 일을 맡아 하고 있는 심방부도 있었으며, 심방부가 제대로 분리되지 않은 부서도 있었다. 바람직한 심방을 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체제에 의한 활동이 기대된다.

이상의 근본적인 문제 외에도 주교2부에서와 같이 각 회원에게 짚을 지어주는 방법도 권장할 만하다. 서로의 짚이 결석할 경우 심방을 할 수 있도록 짚이 가까운 학생끼리나 같은 학교의 제학생끼리 짚을 지어주고 책임을 부가시키는 방법이다. 대부분의 경우, 심방을 하게 되면 다음에는 꼭 나오는 편이라는 것이 효과에 대한 공통된 대답이었다.

이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우리의 무책임과 불성실로 인해 우리의 형제들을 잃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결심을 굳히지 않을 수가 없다.

<박영자 기자>

동심의 세계

오늘의 만나

5학년 찬 3반 홍 경 숙

어느 토요일 오후에 있었던 일이에요.

"경숙아, 만나 했니?"하고 부르시는 어머니의 목소리에 잠깐 놀랐어요.

"만나? 아직 안했는데 어떻게 하지?" 그렇지만 내 마음속에는 싸움이 났어요. 8시 형사 물품보라는 텔레비전 영화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만나를 해야 할지

텔레비전을 보아야 할지 망설였어요. 끝내 나는 텔레비전을 보았어요.

다음날 아침 만나를 교회 가서 했어요. 그런데 어쩐지 그날은 찬양도 잘 되지 않았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 예수님께 잘못을 저질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텔레비전을 더 사랑했잖아요.

그렇지, 회개를 해야지. 회개를 하고 나니 마음이 시원했어요. 다음부터는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지 하고 결심했어요.

□ 바른신앙의 길잡이 □

보수 신앙의 참뜻

이 종 영 목사

오늘날 우리는 「보수신앙」이라는 말에 익숙해 있다. 누구든지 우리의 신앙이 바로 순수한 보수신앙인 것을 고백한다. 그러나 누가 “보수신앙이란 과연 어떤 신앙을 말합니까?” 하고 다구쳐 묻는다면 즉시 대답하기를 망설이게 된다. 무엇인가 꼭 집어서 설명하기에는 너무 모호한 것 같고 그 의미 또한 다양하게 이해되고 있기 때문이다.

누구는 보수신앙이란 한국교회 내에서 가장 호전적인 부류의 사람들이 남을 정죄하고 자신을 방어하는 「표준적 신앙」으로 이해한다. 이러한 자들은 그 표준에 의하여 용납될 수 없는 많은 요소를 소유하면서도 자신에게는 항상 너그러운 태도를 취한다. 그러나 형제의 실수나 이웃의 허물에는 추호의 관용도 용서도 없는 자들이다. 보수신앙이란 양보해서는 안될 기독교의 근본진리를 바로 믿는 순수한 「표준 신앙」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그것이 형제를 정죄하고 자신을 절대화하는 데 쓰이는 자기 방어의 무기일 수 없는 것이다.

또 어떤 자들은 보수신앙을 가리켜 중세적이고 고착적이어서 이 사회에 대한 책임이나 부단한 자기 개선의 전망을 상실한 답답하고 무력한 「무사주의신앙」이라고 진전한다. 그뿐 아니라 저들은 신학의 빈곤과 사회부계의 영혼 구원 및 정치무관의 정속주의를 지향하는 비합리적인 「통제주의적 신앙」이라고 혹평한다. 그러나 이러한 혹평은 참 신앙가까지도 이해하지 못하는 이리석은 자들의 속단일 것이다.

그러면 과연 「보수신앙」이란 무엇이며 또 우리의 신앙은 어떤 것이어야 할까?

보수신앙이란 말의 보다 정확한 표현은 보수적 신앙(conservative faith)이다. 그러므로 보수신앙이란 자연 보수적 신앙의 압축된 표현이며 동시에 「무엇(what)을 믿느냐?」와 함께 「어떻게(how) 믿느냐?」를 더욱 강조한 표현인 것이다.

그리고 보수적 신앙은 현대주의 및 자유주의적 신앙의 반의어임을 인식해야 한다. 여기서 우리는 현대주의와 자유주의에 대한 바른 이해 없이는 보수신앙이 무엇인가를 명확히 지적할 수 없음을 발견하게 된다.

기독교 사상에서 「현대주의」는 전통적 기독교신념들을 재(再)해석하려는 시도를 말한다. 즉 이 세계에 대한 과학적 이해와 역사적 지식의 광명에 비추어 기독교 진리들을 해독하자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기독교 교리의 적절성(適切性)을 현대인의 마음에 부각시켜 보자는 한 시도인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과학적 이해나 역사적 지식을 성경의 독자적 권위보다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물론 과학적 이해나 역사적 지식이 반드시 성경 본래의 가르침에 상충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들은 분명히 그것대로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역사의 흐름을 따라 발전되는 과학적 이해나 역사적 지식은 그 자체만으로 성경을 능가할 수는 없는

것이다. 오히려 성경을 통하여 교정되고 또 이해 될 때 그 본래의 의미에 바로 접근하게 되고 나아가서 바른 용도로 쓰여지게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자유주의」란 근대 서양문명에서의 사상의 자유와 관용 및 인본주의적 동기들의 가치를 인정하고 이것을 기독교 신학에 편입하려는 정신과 태도를 말하는 것이다. 신학적 자유주의자들은 항상 엄격한 정통주의에 대항하여 성경보다 이성의 우위를 주장하고 교회 안에 신념의 다양을 위한 자유를 추구한다. 그러므로 실제로 있어서 현대주의와 자유주의는 동일한 신학 사상의 다른 명칭들인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명칭으로 신(新)프로테스탄트주의, 신신학 등으로 지칭되기도 한다.

이를 종합해 보면 자유주의는 독일신학에 있어 계몽기 이후에 나타난 것으로 소극적으로는 계몽의 격렬한 이성론과 새로운 조직들의 정통주의에 대한 반동으로 일어났고, 적극적으로는 기독교 신학을 소위 신학문(new learning)과 조화시키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이것은 정통적인 것보다 새것을 찬성함에 있어 현대적이었고 모든 신학적 주장들을 자유롭게 비평하는 권리를 사용함에 있어 자유적이었다. 이것은 1806년 쉴라이어 막허의 저서(Uber die Religion)로 말미암아 개시되었고 백여년 후인 1918년 칼·바트의 로마서 주석으로 실세(失勢)하였다고 본다.

그러므로 「보수주의」란 이러한 현대주의와 자유주의에 대항하여 기독교의 정통적 근본진리를 수호하고 성경의 권위를 절대적인 권위로 받아들이는 입장을 말한다. 따라서 「보수신앙」이란 성경 그대로를 인간의 매물 없이 믿는 「순결한 신앙」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 보수신앙은 곧 우리의 신앙인가? 그렇다면, 우리가 소유한 신앙은 「순결한 신앙」이다.

초창기 한국교회에 투신한 사람들은 한두 사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보수적 신앙을 가진 분들이었기 때문에 저들의 선교를 받은 한국교회는 처음부터 보수신학의 틀 안에서 성장해 온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이 보수신학은 그 기치하에 물려 오는 허다한 이색적 요소의 침투를 허용하였다. 그래서 보수신학은 흔히 제도화된 관료적인 신학으로 또는 고립된 신학으로 불리게 되었고 적극적인 전진이나 참신한 개혁보다는 참호를 구축하는 수세적인 신학으로 해동보다는 탁상공론만 일삼는 무력한 신학으로 불리워지게 된 것이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국적을 되찾아야 되지 아니할까?

우리 교회는 신앙적으로 칼빈의 개혁주의 신앙체제를 믿으며 정치적으로 장로 중심의 민주적 정치체제를 따르는 교회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을 대변하는 올바른 표현은 반드시 보수적 개혁신앙이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개혁이란 말의 바른 뜻은 전통적 진리에 대한 개혁이 아니라 이 오염된 사회와 부패한 인간의 자아주장에서부터 일어나는 부단한 성경으로의 개혁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믿는다. 모든 현상의 배후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며 이 모든 현상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며 기도하는 태도로 우리의 전생을 사는 태도로 살고 구원문제에 있어서 무능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전적으로 의지한다.

□ 여름행사 종합평가 □

농어촌전도의 문제들

◇...74년도 「하기 농어촌 전도대」 파송이 지난 8월 12일의 보고회 및 9월 10일의 종합평가를 거...◇
 ◇...처 일단락을 지었다. 본년에는 올해로써 3번째 파송된 농촌전도 활동을 종합하여 그 문제점...◇
 ◇...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

본교회에서는 「전국 일꾼을 키우자」라는 교육지침 아래 내적인 성장을 기하고 있을 뿐 아니라, 매년 여름이면 농어촌의 교회 지도자들을 초청, 특별교육을 시키며, 한걸음 더 나아가서는 농촌에 우리의 전도대원들을 직접 파송시킴으로써 의적인 봉사활동에도 게으르지 않은 사실을 기쁘게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선한 목적에도 부수되는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마련인데, 모든 활동보고와 평가및 건의 사항을 종합하여 여기에서 시급한 몇가지 문제점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로 파송지역 및 그 교회에 대한 구체적인 사전조사가 충분히 되어 있어야 하겠다는 것이다. 그 세세한 항목을 들여보면 그 지역의 가구수, 부락형성조건, 교회 형편, 종교성, 그리고 사이비 종파의 종류 및 분포까지도 자세히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전국을 대상지역으로 하던 것을 차라리 한 노회단위로 바꾼다면, 사전조사의 편리는 물론이거니와 한 지역의 철저한 복음화도 기할 수 있어 고려해 볼 여지가 있다.

어쨌든 이런 사전 조사가 충분히 되어 있으면 생각하였던 것보다 그 쪽 사정이 너무 달라 당황했다는 보

고는 저절로 없어지게 될 것이다.

둘째, 앞에서 말한 것처럼 사이비 종파에 대한 문제이다. 전도요원 훈련시에 간단하게나마 각 사이비종파 그리고 이단을 분석 비판하여 현지활동에서 대처할 수 있는 예비지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세번째로 결신자의 계속적인 육성방안 문제이다. 전도는 우리 대원들이 말고 거두어들이는 수고는 전적으로 지방 교회에 일임한다는 것이 극히 당연한 일인 것 같으나 새신자 육성에 필요한 교재 혹은 전도지 보급, 또 지방교회에서 특별히 보내오는 보고 또는 지방별 특색에 따르는 각종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하여 계속해서 결신자들을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끔 이끌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네째는 전도 장비의 현대화이다. 근대화작업으로 인하여 농촌의 생활수준도 판이하게 달라져서 재래의 전도장비로써는 도저히 그들의 문화수준에도 미치지 못할 형편이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에서도 촬영기, 영상기 정도는 구비하여 팍팍한 종교 영화라도 상영할 수 있다면 인구동원과 교육면에 있어 훨씬 더 효과를 기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무엇보다도 전도장비의 확장 내지는 강화의 문제가 가장 시급한 것 같다.

다섯째, 전도대원의 구성문제인데, 전도대의 구성은 청·장년·남녀 등의 조건으로 골고루 배치함이 이상적이라는 결론이다. 전도의 대상이 다양다층이니만큼 대원들의 구성도 연령별로나 성별로나 치우쳐지지 않도록 골고루 안배하여 어떤 대상을 만나더라도 즉각 대처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올해처럼 추가과전 지역의 전도대원 모집으로 인한 혼란이 없도록 사전 구성이 되어야겠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좀더 예비성 있고 포괄성 있는 교회측의 배려가 있어야겠다.

이밖에도 현지활동시의 여름성경 학교 간접지원, 대원들간의 단합 등 소소한 문제들이 많으나, 이상의 문제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녀석한 예산의 투입이 무엇보다도 절실한 것 같다.

그러나 우리의 농어촌 전도대 파송이 사회적인 농촌운동이 아니라 복음운동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구원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청지기로서의 대원들의 자각,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또한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이 모든 문제점의 해결책으로 귀결지어짐은 너무도 당연한 결론인 것 같다. <김 회숙 기자>

△할렐루야! 인도네시아 소식△

★현재 인도네시아에서는 회교도들의 금식기도기간으로 회교도들이 모두 금식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회교도들의 이 금식기도가 끝나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이전보다 더한 핍박과 선교에 대한 방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저는 아무 두려움 없이 도리어 더 큰 영광나타낼 기회 주실 것을 믿고 산기도 중이오며 산기도를 마치면 보르네오지방의 한국인들을 위한 전도여행을 떠나려 합니다.

예상되는 회교도들의 핍박과 새로운 전도여행을 위하여 중헌 성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지난 5월 제4회 정글 순회부흥집회를 통하여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읍니다.

또한 지난 7월에는 자카르타 한인연합교회 주일에 배를 인도하고, 페탐브란 교회와 중국인 복음교회에

서 주일예배를 인도하였읍니다.

8월에는 자카르타에서 가장 활동적인 교회로 알려진 그라말소까교회(오순절 계통, 테라 목사 시무)에서 주일예배를 인도하였읍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중에 물색중이던 본선교관 건립 후보지로서 2개처가 물색되었으니 본부가 속히 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편집자 주 : 본 선교회 실행위원회에서는 자 카르타 시내에서 37km 떨어진 600m²(약 200경)의 기지를 선교관 건립 후보지로 선정하고, 지난 10월 13일 이 후보지 매입을 위하여 선교회 실행위원회에서 특별 헌금을 실시하여 85만원이 모였다고 하는데 후보지를 매입하는데는 모두 8,696\$ (약 350만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 선교관 건립 후보지 매입을 위하여 뜻 있는 분의 풍성한 헌금과 기도가 요청되고 있다.

□ 책을 읽읍시다 · 이달의 추천도서

왜 나는

크리스찬이 되었는가

»오·할레스비

이 책은 우리에게 익히 알려져 있고 고(故)「오·할레스비」의 저서이다. 그의 저서로서 「기도」 역시 여러 나라 언어로 번역되어 기독교의 고전의 하나로 인정받고 있다. 노르웨이에서 낳은 세계 최대의 설교자인 그는 확고한 원칙과 깊은 신념의 사람으로 일상적인 단순한 말로 영적인 진리를 본서에서 잘 나타내 주고 있다. 「할레스비」교수 자신의 신앙 체험과 생활(生活)을 비추어 쓰여져 있으므로 의식과 회의에 가득찬 현대인에게 또 기독교인에게 확고한 해답을 줄 것이다. 의심을 풀는 회의자들이 날로 늘어나서 지금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많은 사이비 신앙인(?)이 나타나게 되었으며 지식의 교화를 막론하고 이런 회의가 두루 퍼져 있다. 이러한 때에 저자「오·할레스비」는 의식에서 신앙으로 바뀌어야 하는 이유와, 체험과 말씀에 서지 않는 이들을 비판하면서 크리스찬이 되어야 하는 명분을 밝히 적어 놓았다. 한편, 기독교의 신비적 요소를 서술함으로써 잘못 인식되고 있는 기독교의 신비에 대해 올바르게 지적해 주고 있으며, 회개를 통한 구원의 길을 밝혀 준다.

본서 전체의 흐름을 통해 「오·할레스비」의 역점은 흔들리기 쉬운 우리의 신앙에 반석같은 신앙을 주기 위해 쓰여졌다고 봐서 충현 교수들에게 신앙의 좋은 지침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 98페이지 · 영음사 발행 · 300원

△▽△ 읽을 만한 책△▽△

- 칼빈주의 문화관 : Henry R. Van Til
- 한국의 신흥종교(상) : 탁 명 환
- 한국의 신흥종교(중) : 탁 명 환
- 칼빈주의 예정론 : Loraine Boettner
- 신구약 성경주석(각 성서별) : 박 윤 신

- 다니엘서의 메시아 예언 : 간 하 배
- 성경의 교의 : R. A. Torrey
- 교회사 : 김 의 환 감수
- 이스라엘 : 김 상 진
- 교회음악 약사 : 원 진 회
- 최신 성구 대사전 : 한국성서협회
- 기독교 교육 : 반 피 득
- 대설교전집(전12권) : 박문출판사
- 무디 설교집 : 백합출판사
- 교회력 : Edward T. Horn
- 공산세계속의 기독교 투쟁사 : Kurt Hutten
- 복회상담 원리 : 황 의 영
- 신구약 중간사 : 송 락 원

<이상 교회 도서관 >

»우찌무라 간조오(内村鑑三)<

구 안 록(求安錄)

저자는 일본 기독교계의 선구자로서 성서 연구에 있어 특이한 위치를 차지한 학자이다.

1893년에 쓰여진 책으로써 이미 고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으나 오늘날에도 그의 체계적 신앙의 발자취는 생생히 우리의 마음에 아로새겨진다.

이 책은 우찌무라 간조오(内村鑑三)의 대표작 중의 하나로 평안 탐구의 기록이다.

책의 앞부분에서는 인생을 통해 괴를 벗어나 버리기 위한 괴의 문제와 싸움이 필자의 체계적인 간증을 토대로 하여 논리적이면서도 체계적으로 누구에게나 공감이 가도록 쉽게 쓰여져 있다. 그리고 뒷부분에서는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앞부분의 결론에서 재발하여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룬다는 내적 신앙 체험에 의해 기쁨으로 진지하게 괴의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전경, 신앙으로 인한 평안이 무엇이며, 괴문제의 고민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알고자 원한다면 이 책은 꼭 만족한 해답을 줄 것이다.

★ 120페이지 · 천광사 발행 · 150원

컬 럼

젊은이의 땅

정 은 표

얼마 전만 해도 이 땅에 청년문화가 있느니 없느니 하고 신문·잡지·방송 등을 통하여 시끌시끌 하더니만 요즘은 좀 뜸한 듯하다.

청년문화에 대해 말하는 사람마다 다 제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리고 옳다고 하는 바람에 청년문화가 무엇인지 알 듯 모를 듯 아리송하고 단지 알 수 있는 것은 젊은이에 대한 시비란 것뿐이다. 표현방식이 다르긴 하지만 어느 시대이고 젊은이에 대한 시비는 늘 있었던 것이기에 젊은이에 대한 시비라면 별로 새로운 이야기랄 것까지는 없다. 단지 시비인가 아닌가 하는 시비의 유무를 가려내는 일 보다는 어떤 문제로 시비가 일고 있는지가 더 중

요할 것이다. 이같은 시비를 짓곳은 개구장이처럼 먼저 걸거나 시비거리를 만드는 쪽은 대개 젊은이 지만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실증판구는 이러한 젊은이의 기질이 마치 뭇취선듯 느긋한 어떤 현상에 활력소가 되거나 탈출구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젊은이의 이러한 기질이 밖으로의 부딪힘을 피하고 안으로 숙여들 때, 젊음의 고뇌와 교육이 시작되기 마련이다.

요사이 교회의 젊은이를 가운데 이러한 젊음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대학부를 거쳐 청년부에 이른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그들이 서야 할 그들의 땅을 찾지 못하는 어려움에 빠져 있는 것 같다.

이는 어떻게 보면 젊은이의 설 땅이 넓은 것 같으면서도 좁은 교회의 현실과 청년교육에 대한 제도적 미흡에서 오는 것이라.

□ 교회기관 소개 ③ □

> 여전도회편 <

~~~~~ 보이지 않는 헌신의 손길 ~~~~~

—여성의 바른 위치 지키며 전도와 구제에 힘써—



여성이 남성에 대하여 있는

것인가, 아니면 더불어 있는

것인가의 질문에 그 어느 편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여성이 여

성을 자각하는 면은 크게 달라진다고 본다.

오래 전부터 일고 있는 여성해방운동이라는 세계적인

물결은 남성과 더불어 여성이 있어야만 하는 필요

성의 길을 찾기보다는 남성을 상대로 한 권리회복(?)

의 선전포고와 같은 느낌이 더욱 짙다.

인간의 창조적 원리에 비취 볼 때 남녀의 위치가 하

나님의 자녀라는 면에서 동등하다고 하여 그 하여야 할

바가 모두 같은 것은 아니다. 각기 마땅히 해야 할 일

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증인됨은

남녀의 똑같은 의무

그러나 남녀가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점에서 똑

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똑같은 의무를 또한 가지고 있다. 특

히 교회 내에서 여성의 여성다운 바른 위치를 조심스

럽게 지켜 나가면서 그리스도의 증인된 의무를 감당

한다는 것은 여성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그 이름조차 밝히

알 수 없는 수많은 여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결정적인 증인으로 주 안에서 매우 훌륭하게 저들의

의무를 감당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성경에 기록된 이같은 사실은 과거 역사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아래 현재 우

리 중원교회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다름 아닌

중원의 「여전도회」이다.

복음의 가치를 높이 들고 중원의 여성들이 중원교

회 여전도회라는 이름의 조직을 이룬 것은 1954년 1월

17일이었다. 중원의 한 분신으로 중원의 성장과 함께

자라오면서 30여년간 모든 회원이 한결같이 힘을 모아

전도와 구제사업에 기울인 헌신적인 봉사와 그 열매는

그 어느 기관 못지 않으며 교회의 갖가지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때마다 미처 눈에 보이지 않는 곳까지 여성

다운 섬세하고도 따뜻한 손길이 닿지 않은 일은 거의

없다.

일찌기 교회 개척에 주력

이러한 여전도회는 일찌기 전도사업에 주력하여 19

59년 경기 중앙교회를 비롯하여 1964년 충남 부여제일

교회, 1967년 서울 장성교회, 1971년 서울 상현교회

들을 개척하여 자립시켰었다.

뿐만 아니라 중부경찰서에도 전도의 길을 열어 1967

년 경복을 파송하였고, 대만에 있는 대북교회를 돕기

위하여서 1968년에는 여전도회에 선교부를 두어 해외

선교를 지원하기도 하였었다.

그 외에도 소록도의 결핵요양원인 애육원, 밀양 나

환자촌, 중부 시립병원, 중부 보건소 등을 기도와 물

질로 도왔고, 중부시립병원은 1969년 이래로 신 옥희

전도사를 파송하여 병원전도에 힘쓰고 있으며, 시온 고

아원에도 전도사를 파송하고 있다. 1971년에는 천국 일

꾼을 키우는 일에도 힘써 총회신학생중 1명을 선발하

여 장학금을 주기도 하였다.

73년부터 군인전도에 주력

1973년부터는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사업 추

진 방침을 변경, 진행중인 많은 사업을 일단 정리하고

전방의 2개 군인교회를 돕는 일에 모든 힘을 집중하기

도하여 군인전도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여전도회가 이처럼 군인전도에 힘쓰고자 하는 까닭

은 ① 젊은이에게 전도한다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는

것 ② 많은 젊은이들 가운데에서도 특히 현재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현역 군인들에게 말씀을 전파하

여 예수 믿고 구원에 이르게 하여 말씀으로 무장한 신

자로서의 정병이 되도록 하며 아울러 부활한 반공정신으

로 무장시킬 수 있다는 것 ③ 군복무를 마치고 자기의

고향에 돌아가 복음을 전파하게 됨으로 간접적으로 전

국에 복음을 전파하는 방법이 되기 때문이란 것이다.

이와같이 여전도회가 얼마나 전도사업에 힘을 기울

이고 있는가 하는 것은 870여만원의 1974년도 여전도

회 총예산 가운데 270여만원을 대의 전도비로 책정하

고 있는 것을 보아서도 알 수 있다. 뿐만이 아니라 여

전도회 연합회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안으로는 회원들로 하여금 더욱 더 깊은 믿음의 생활

을 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일깨우는 일에도 게을리하

지 않고 있으며 회원간의 단결과 아름다운 교제를 위

하여 매월 월례회 때마다 구역 대항 찬송경연대회를

열기도 하며 성경암송·생일축하를 하며 회원이 기쁜

일이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기도 하고 함

께 슬퍼하기도 한다.

현재 임원 35명을 포함하여 580여명의 회원이 여전

도회의 여러가지 사업에 합심하여 봉사하고 있다.

여성도라면 누구나 회원이 되어야

중원교회 여성도라면 누구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

으며, 가입하여야겠다. 회원가입 절차도 준비된 입회

원서에 해당사항을 기록하여 여전도회 회장 앞으로 제

출하면 된다.

<정 은표 간사>

기 관 소 식

◇ 주일학교 ◇

- ❖ 지난 9월 22일부터 경비실과 경비실에 연결된 가전물을 개조하여 주일학교 1·2부 종합사무실로 정식 문을 열었다.
- ❖ 10월 3일 주일학교 1부 교사들의 교사 야외예배가 있었다.
- ❖ 유치부—오는 주수 감사절에 있을 교사들과 어머니들과의 합동 성가합창 발표회를 위하여 맹연습중이다.
- ❖ 유치부—9월 29일 오후 3시 성경이야기 발표대회를 가졌다.
- ❖ 유치부—9월 29일 오전 제3학기 성경시험을 치루었다.
- ❖ 유치부—10월 27일 오후 3시 학부형 초청 과담회를 유치부실에서 열었다.
- ❖ 유년부—10월 6일 제3학기 성경시험을 치루었다.
- ❖ 유년부—9월 15일과 22일 저녁 예배 때에 초등부와 함께 2부순서로 반별 그리기대회를 가졌다.
- ❖ 유년부—9월 한달 동안 가을 어린이 일제실방을 실시하였다.
- ❖ 초등부—11월 17일 주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어린이 축하예배 및 고아원 방문을 위하여 열심히 준비중이다.
- ❖ 초등부—10월 13일 오전 제3학기 성경시험 및 오늘의 만나 우수자 시상.
- ❖ 초등부—10월 5일 수도노회 주최 글짓기·그리기 대회에 참가하다.
- ❖ 초등부—10월 한달동안 교사 가정실방을 실시하다.
- ❖ 초등부—9월 29일 제3학기 성경시험.
- ❖ 초등부—9월 한달동안 가을 어린이 일제실방을 실시하고 보고대회를 열다.
- ❖ 중등부—10월 24일 소양강 댐에서 교사 야외 위로회를 갖다.
- ❖ 중등부—10월 13일 반별 성가경연대회를 실시하다.
- ❖ 중등부—9월 29일 한성교회 김진택 목사님을 모시고 79명이 모여 「참된 복」이라는 제목의 특강을 갖다.
- ❖ 중등부—9월 29일 제3학기 성경시험을 치르다.

- ❖ 중등부—9월 28일 고등부와 합동으로 월남에서 오신 케렌 바위 목사님을 모시고 200여명이 모여 「신앙의 뿌리를 깊이 박자」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과 월남교회의 이야기를 듣다.
- ❖ 중등부—9월 1일 61명이 모여 성경암송대회를 열었는데 2의11반 한 광욱이 1등하다.
- ❖ 고등부—10월 20일 오후 2시부터 조별 성가경연대회를 열다.
- ❖ 고등부—10월 3일 100여명의 회원이 경기도 일영으로 야외예배를 가다.
- ❖ 고등부—9월 28일 오후 「수레바퀴 밑에서·전원교향악·테즈」등의 작품을 읽고 독후감 발표회를 열다.
- ❖ 고등부—9월 15일 오후 「로마 가톨릭의 비판」이라는 제목의 특강을 들었는데 강사는 정관일 목사.
- ❖ 대학부—10월 26일 청년부와 합동으로 한영중·고등학교 교정에서 체육대회를 열었다.
- ❖ 대학부—10월 24일 도봉산에서 산상예배를 드리다.
- ❖ 대학부—「The Songs of Christian Youth」라는 제목의 115곡이 수록된 대학생을 위한 복음가집을 250부 출판하다.
- ❖ 대학부—토요집회의 장소를 교회나 개인의 집에서 조별로 모여 도록 하여 토론과 대화의 길을 열다.
- ❖ 대학부—9월 22일부터 집회시간을 오전 11시50분으로 변경.
- ❖ 대학부—9월 21일 오후 신·구원원 간담회를 당회실에서 갖다.
- ❖ 대학부—9월 8일 제6차 정기총회를 열어 박창균 군을 회장으로, 오윤숙 양을 부회장으로 선출하였고 9월 19일 오후에는 신임수련회를 당회실에서 가졌다.
- ❖ 청년부—11월 3일 총회를 앞두고 총회를 위한 특별 철야기도회가 10월 23~24일 청계산 기도원에서 열리다.
- ❖ 청년부—10월 9일 80여명의 회원이 관악산에서 산상예배를 드리다.
- ❖ 청년부—9월 29일 조별 성가경연대회를 열었다.
- ❖ 청년부—9월 15일 오후 중·고등부실에서 청년부 주최 음악감상회를 열었다.
- ❖ 장년부—9월 29일 99명의 학생

이 제3학기 성경시험을 치렀다.
❖ 장년부—장년부 집회는 매주 3부 예배 시간에 유년부실에서 모이고 있다.

◇ 기타 각 기관 ◇

- ❖ 해외복음선교회—해외복음선교회 사무실을 동관 1층에 마련하였다.
- ❖ 해외복음선교회—9월 2일에 개교한 제2회 단기 선교대학원을 홍종남·이종영 선교사가 수료하였다.
- ❖ 해외복음선교회—9월 1일부터 해외복음선교회 맷치를 제작하여 회원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다.
- ❖ 남전도회—10월 13일 신성종 강도사를 모시고 헌신예배로 드렸다.
- ❖ 남전도회—10월 9일 수유리로 회원 천교를 위한 야외모임을 갖었다.
- ❖ 여전도회—3366부대 군인 교회 의자 제작을 위해 10만원 보조.
- ❖ 여전도회—교회 식당에 큰 국그릇 100개를 구입, 비치하였다.

◆ 등록/정성을 다해 인도합니다. <9월·10월>

김봉덕(청구) 정영화(천호) 박상범(북정) 오원영(인현①) 최영희(문래) 황오연(장충②) 최광철(화원) 김광은(성북) 안금자(동대문) 김길웅(삼양) 심종택(수유리) 한봉덕(창신) 이경권(성북) 박정용(성수) 김의순(종로) 김영근(화양) 이길자(혹석) 김신희(한남) 강진희·최경심·소인순(보광) 김종립·임병배(필동①) 신덕선(용산) 신경희(미아리) 최계순(창신) 김규중·권종호(홍인) 조광한(마장) 김복희(수유리) 주순희(청과) 하용석(인현②) 김정숙(충무) 홍제철(대방) 김정택·이인상(청과) 박정순(문래)—이상 37명

◆ 결혼/축하드립니다.

<9월·10월>

남자 《김기호·이병학·홍창표·김승현·김영하·김중용·김철환》
여자 《이숙자·박숙영·이진애·김형숙·조경숙·정정진·한성실

◆ 별세/위로드립니다.

<9월·10월>

남자 《노해근·안영주·양만금·이규창》
여자 《박복조·박형주·홍원심

기재석

◎ 한국에 온 외국인들이
보고 신기하게 생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담뱃
물물 담겨진 철조망이나
뾰족하게 날을 세워 꽃아 놓은 유리병 조각이라는
말을 들어 본 기억이 있다.

주일학교 종합사무실 위의 담뱃에 있는 녹슨
철조망이나 동(東)편의 옛 정문을 시멘트 벽돌로
얼기설기 막아 놓은 것을 외국인들이 보고 신기하게
생각하는지는 아직 물어 볼 기회가 없었기에 모
르겠지만, 약간만 손질해서 산뜻하게 칠이라도
한다면 물어보나 마나 오가는 사람들까지도 기분
좋다고 할 것은 뻔한 일. (향)

◎ 요즘의 현대인들은 너와 나나 할 것 없이
모두 피로에 지쳐 있다. 육체적인 과로로 시작해
서 정신적인 고통을 더한다면 쓰러질 수밖에 없을
게다. 증현교회는 안락으로 깨끗하게 정돈되어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위로와 안정감을 느끼게
한다.

그런데 요즘 각 부(部)에서 나붙이고 있는 광
고들의 무질서한 난립(?)으로 시작을 매우 피로
하게 하며 무질서한 느낌을 갖게 한다. 적제적소
에 아름다운 광고를 게시함으로 보는 이로 하여
금 시작적인 즐거움과 아울러 좀더 호젓한 마음
으로 공감을 느끼게 할 수는 없을까? (호)

◎ 교회 건물사용 배치가 조정되는 바람에 휴
사 재개발지역처럼 각부가 이삿짐을 싸들고 자유

분방하게 왕래하며 “대청소를 한다” “유리를 닦
는다” “새로 페인트칠을 한다”하고 야단법석. 깨
끗이 하더니 아무튼 좋은 일이오만 여러 사람이
함께 쓰고 있는 곳도 신경 좀 쓰시다.

어제 예배당 의자나 마루바닥에 굴러다니는 주
보나, 통로에 굴러다니는 휴지, 땀, 사탕 껍질 등
에는 무신경인지? 그것도 병이라면 약 좀 드셔
야 되지 않겠소? (운)

◎ 정기 집회나 공식적인 모임의 장소 사용에
있어 혼잡을 피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장소별 집회이름과 집회시간을 표시한 「장소사용
현황판」이 주일학교 종합사무실에 마련되고 또
같은 내용이 프린트되어 모든 장소의 출입구에
붙여 놓은 것은 정말 잘한 일인데 앞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금강하다.

아무리 좋은 법이나 규칙이라 해도 그것을 지
켜야 할 사람들이 지켜주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인
것처럼 정기적인 집회 외로 집회장소를 사용하고
자 할 때에는 사전에 1부 서기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것 등의 몇가지 준수사항을 지켜주지 않는다
면 이도 그림의 떡이다. (선)

◎ 원고 한 편 받기 정말 힘들다.
글 쓰는 것이 어렵기야 하겠지만 행여나 편집
계획에 구멍이 날새라 죄인 아닌 죄인이 되어 불
들고 사정하는 우리의 심정도 열 번에 한 번쯤만
이해하여 준다 해도 속 시원하겠다. (원)

원고모집

증현의 모든 가족들이 「증현」지에 참여하
기를 바라면서 다음과 같이 원고를 모집합니다.

다 음

종류: 신앙간증, 수필, 시, 성도의 교제나
교회 발전을 위한 제언 등.

매수: 200자 원고지 8매 정도.

기간: 수시.

제출할 곳: 「증현」투고함이나 교회 사무실.

※ 주의: 한글로 쓰시되 외국어를 필요로 할 때는
괄호 안에 써 넣으십시오.

「증현」지 임원

<편집위원>

윤 종 순	장르(대표)	위 영 환	장르
최 식 주	장르	천 성 덕	목사(주간)
홍 종 만	목사	윤 명 식	집사
한 경 일	집사		

<간 사>

조 선 근 집사 정 은 표 선생

사령(辭令)

명, 「증현」지 기자

황 복 순 조 선 회

면, 「증현」지 기자

박 윤 식 백 선 혜

김 현 권 안 명 수

1974년 9월 22일부

편집하고 나서

□...만추(晩秋)! 풍요의 계절이다. 농부는 결실을
거두는 이 한순간의 기쁨을 맛보기 위해 얼마나 많은
날들을 땀으로 적셨던가. 녀석한 자는 감사와 경안이
있으며 다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다.

그러나 땀흘리기를 싫어했던 자가 기쁠 수 있는
것은 무성한 무화과일 위에 도사린 저주뿐이다. 가난
한 자가 녀석해질 수 있는 길은 오직 회개뿐이라.

□...이번 「증현」11호의 특징이 탈고된 것은 어느 날
새벽. 붓을 놓는 순간 활짝 뜨거움이 솟구치며 감사의
기도가 절로 나왔다.

결코, 원고 내용이 만족스러워서가 아니다. 증현의
앞날을 위하여 무엇인가 한마디 던져보고 싶었던 처음
의 간절한 소원과과는 달리 예상 외로 자료의 수집이 어
려웠고 수집된 자료의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여 특징
구성이 도저히 불가능하리라 느꼈는데 힘겹게나마 무
엇인가 잡히는 것이 있었고 분명한 비전(vision)을 가
지고 증현의 모든 성도가 하나로 되어가고 있다는 사
실을 발견하게 된 기쁨에서였다.

□...시인 토오랑생의 시(詩) 가운데 “죽은 여자보다
좀더 가엾은 것은 잊혀진 여자이다”라는 귀절이 있다.
이 귀절을 “글이 없는 것보다 좀더 가엾은 것은 읽혀
지지 않는 글이다”라고 고쳐쓰고 싶다.

읽히지도 않는 글을 누가 쓰고, 읽히지도 않는 책을
누가 만드는가. 모두 글을 쓰거나 책을 만드는 사람이
라고 대답하겠지마는 훌륭한 독자가 없는데 좋은 글,
좋은 책이 나오기란 더욱 어렵다고 말하고 싶다. <표>